

날은 **홍범도장군**

VOL. 32

발행인 우원식
편집인 홍순계
편집위원장 김용환
편집위원 박석봉, 정우기, 한동건, 김유림
발행처 (사)여천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
전 화 02-784-3601
팩 스 02-6788-6790
창간일 2014년 8월 15일
홈페이지 www.hongbumdo.org
비매품

Contents

묘역참배

- 유해봉환 1주년 기념 묘역 참배 (우원식 이사장) 02
- 참배 수기 (박점조 이사) 04

안보투어

- 백령도 답사기 01 (임성욱 홍범도 아카데미 전문위원) 07
- 백령도 답사기 02 (오현석 이사) 09
- 백령도 답사기 03 (정우기 이사) 11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 홍범도장군 등 156명, 전입신고 마치다 (황원섭 부이사장) 13

SBS 특집방송

- 전설의 타이거 헌터 78년만의 귀환 (김경준 한국외대) 15

특집 연재

- 한인의 러시아 이주사 (하) (반병울 홍범도 아카데미 원장) 17

기념사업회 소식

22



묘역참배

유해봉환 1주년 기념 홍범도장군 묘역참배

추모사 | 우원식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광복 제77주년과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1주년을 맞아 오늘 우리는 독립전쟁 역사에 우뚝 솟은 거대한 산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서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독립열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범도라는 이름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용맹하고 빛나는 이름입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신지 1년이 되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1주년, 장군이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78년, 참으로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고국으로 귀환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여섯 대의 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영공을 진입하는 모습은 홍범도 장군이 그토록 소망하던 조국의 독립과 이제는 우리 스스로 조국과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가졌음을 홍 장군께 보고하는 장면이기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 홍범도 장군을 영접했고, 양 일간 국민추도 기간을 거쳐 이 곳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시는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군님의 귀향을 맞이했습니다. 홍범도장군의 유해봉환은 '독립전쟁'의 의미를 다시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합니다.

봉오동, 청산리전투 모두 우리 독립군과 일제가 맞붙어 싸운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이뤄낸 승리는 독립운동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나라 잃은 굴종과 설움을 씻게 하고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장군의 불굴의 무장투쟁은 강한 국방력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함'은 금지와 함께 필승의 신념으로 동해 앞바다를 지키고 있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들의 숭고한 애국정신 위에서 대한민국은 종합군사력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자주국방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계승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확립하는 일이며, 분단된 우리 역사를 통일로 완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독립군들을 더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찾아내 늦지 않게 후손들이라도 보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굴하고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해야 합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독립전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무명 독립용사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기념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전쟁의 영웅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평범함 속 용기들이 하나 둘 모여 위대한 희망을 만들어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장군님이 생전에 늘 말씀하셨듯이 함께 싸우다 이름도, 빛도 없이 쓰러져간 많은 독립군 무명용사들과 함께 안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값진 피로 일군 호국영령을 기리는 일만큼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홍범도 장군님,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들 곁에서 언제나 거기 있는 큰 산처럼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귀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홍범도 장군님, 부디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묘역참배 개요

- | 일시 | 2022년 8월 15일 정오
- | 장소 | 대전현충원 제3묘역
- | 주최 |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 | 참석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애지모
재향군인회(노원구, 대전시)
민족문제 연구소(대전)
황운하 국회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묘역참배

현충원 참배를 다녀오면서...



박점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디아스포라분과 이사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립대전현충원 홍범도장군 묘역, 그림고도 그리웠을 고국산천으로 귀환한 지 만 1년, 기쁜 마음으로 잠들어 계실 홍범도장군님을 생각하며 모인 우리들은 우원식 이사장님의, 1년전 장군님께 대한 국가적인 예를 다한 유해 봉환식을 떠 올리며 기념사업회로서 과업을 이룬 기쁨을 담은 기념사를 시작으로 참배는 시작되어, 고국으로 귀환하신 홍범도장군님의 영면을 기원하는 많은 참배 행렬이 이어졌다.

저와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의 첫 인연은 2015년 봉오동전투 전승기념 95주년 기념방문 행사에 이종찬 명예회장님 외 20여 분의 훌륭한 선생님들과 다녀온 봉오동, 청산리전투 현장 답사길부터였다. 봉오동 골짜기 아랫 마을 수남촌에는 애절하게 아리랑을 노래하고 우리의 옷과 문화 홍범도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지켜, 이어오는 독립군의 후손들이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촌락을 이루어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 일행들의 방문을 우등불축제에 우리의 가락과 성대한 만찬으로 맞이해 주셨다.

5박6일 답사 일정으로 둘러본 명동촌과 북한땅이 희히 건너다 보이는 도문과 용정 일대를 둘러보며 독립운동가들의 고단했을 삶과 그 가운데도 자주독립을 위한 노력으로 끝까지 교육에 힘썼던 흔적들은 곳곳에서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고, 이제 고국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백두산 천지를 오르는 과정에 많은 비와 짙은 안개로 등반은 중단되어 아쉽게도 천지를 보지 못한 채 돌아서시며 “내가 여기를 다시 오를 수 있을까? 통일된 조국의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을까?” 7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의 내 뺨는 한마디 말씀으로, 왜 홍이표, 이행란 애지모 대표님께서 이 일정에 저를 초대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함께 하셨던 홍성덕 (전)부이사장님, 홍성종 이사님, 홍재구 이사님... 여러 뜻있는 분들이 이종찬(전)회장님을 도와 무후선열이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없는 살림을 주머니 털어 지켜오신 그 정신을 가까이에서 잘 배워 후대에 잘 전해 지고 이어지길 바라시는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도, 홍범도장군님과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강제 이주열차에 태워져 도착하게 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답사에서, 수많은 고려인의 살아있는 강인한 정신



적 지주가 되어 계신 홍범도장군님의 묘역을 참배하며 머나먼 이곳에 장군님을 두고 오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울먹이며 묘역 주변을 맴도는 이사님들과 홍이표이사님의 홍범도가를 읊조리는 모습에서도, 기념사업회를 도와 우리 애지모독립유공자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느끼는 시간이였다.

홍범도장군님의 유해 봉환을 위해 외무부로 어디로 문을 두드리며 다니시던 이종찬(전)이사장님과 황원섭(현)부이사장님의 정성은 드디어 우원식 이사장님과 한동건 사무총장님의 노력으로, 2021년 광복 101주년을 맞아 결실을 맺게 되어 홍범도장군님의 유해는 역사적인 귀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오늘, 우원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기념사업회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장군님 묘역에 헌화, 참배 하였습니다. 우원식 이사장님이 이끄시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하루를 보내며, 애지모 후원회원님들과 홍이표,이행란 애지모 대표님을 도와 기념사업회를 후원, 봉사, 홍보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뜻 깊게 보낸 광복절을 마무리 합니다.





백령도 안보투어 후기

기념사업회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항일 독립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찾는
안보투어를 7월 23~24일 진행하였습니다.
투어에 참석한 임성욱, 오현석, 정우기
3명의 체험수기를 게재합니다.

백령도
안보투어
후기 01



임성욱
홍범도 아카데미 전문위원



66

백령도 안보투어 답사기

99

난생 처음 가는 백령도 여행이라서 가기 전부터 많이 기대가 되었다. 특히 아침 일찍 인천항에서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못할까봐 전날 밤부터 잔뜩 긴장이 되었다. 다행히도 부윤경 고문님께서 차로 강변역에서부터 인천항까지 태워주셔서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인천항 연안부두에 도착했다. 연안부두라고 불리는 이곳은 인천 지역 답사 때 와 봐서 어느 정도 익숙하긴 했지만, 실제로 배를 타 본 것은 처음이라 신기하고 두근거렸다. 그것도 가까운 섬도 아니고 무려 백령도라니. 백령도까지 뱃길로 4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KTX로 부산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일까? 그동안 나에게 백령도라는 곳은 마음으로는 부산보다도 훨씬 더 먼 곳이었던 것 같다. 다행히 멀미 없이 무사히 백령도 용기포항에 잘 도착했다. 내리자마자 맞은편 산에 백령도라는 큰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내가 백령도에 왔구나. 실감이 나면서 묘한 작은 흥분감이 들었다. 항구의 모습을 눈과 카메라에 담은 후 갑자기 여기서도 전화가 잘 되는지 궁금해서 서울에 전화를 해 봤다. 통화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스마트폰 와이파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역시 백령도는 우리 땅이구나. 한 국가의 영토의 경계는 무엇으로 정해지는 것일까? 사전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군사적, 외교적인 경계선이 기준이 되겠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특히 현대 기술 문명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전화와 와이파이 같은 통신서비스의 제공 영역이 그 경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 한 국가의 영토로 소속되는 순간 그곳이 아무리 외진 곳이라고 할 지라도 그래서 비용 대비 남는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통신서비스를 비롯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책임지고 제공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설령 그것이 그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바로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했다. 뚱이네 맛집이라는 곳이었는데 메뉴는 멍게밥이었다. 보기에는 그저 흔한 비빔밥 종류의 하나였는데, 먹어 보니 은은하고 고소한 감칠맛이 좋았다. 아마도 백령도 산 신선한 멍게가 들어가서일까? 밥을 먹고 나서 뱃길을 달려 백령도 해병대 전망대로 가서 안보 브리핑을 들었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바로 백령도를 포함한 한반도 서부 모형도였다. 백령도가 서울보다도 평양과 산동반도에서 더 가까운 곳이라는 말이 모형도를 보며 실감이 났다. 모형도에는 수많은 선이 그려져 있었다. 38선, 휴전선, 북방한계선, 서해경비계선,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등등. 인간의 욕심과 증오 때문에 전쟁을 겪어야 했고, 또 그로 인해 수많은 선이 생겨났다. 언제쯤 우리는 이러한 선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

전망대를 내려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두무진 관광을 시작했다. 단층 모양을 그대로 포함한 채 비와 바람을 이겨낸 채 수억 년을 버텨 온 기암절벽들.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정말 여기가 한국일까 싶을 정도였다. 특히 유람선을 타고 한참을 달려도 끝없이 펼쳐지는 해안 바위 절벽을 보며 왜 사람들이 이곳을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었다. 배 위에서 비를 맞으며 바라보았던 그 20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한 절경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는 욕망에 수없이 셔터를 눌러댔지만, 결국 마음 속에서 드는 생각은 사진으로는 이 풍광과 그 풍광을 본 나의 느낌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는 절망이었다. 그래서 사진 찍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이 풍광을 눈으로 마음으로 많이 담아두자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 한편 드는 생각은 내가 눈으로 마음으로 많이 담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제대로 기억이나 날까 하는 생각. 결국 인간은 거대한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무진 관광을 마치고 맛있는 회를 먹고 해병대 군인들이 사용하는 숙소에 우리도 여장을 풀었다. 그리고 숙소 휴게 공간에 참가자들이 다 함께 모여 홍범도 장군에 대한 특강, 러시아 문제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처음으로 간 장소는 심청각이었다. 어제와 달리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심청 설화의 배경이 황해도와 백령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심청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것일까? 언제부터냐 나는 충신, 효자, 열부 등을 기림으로써 충성, 효도, 절개 등 봉건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군주제 및 가부장제적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림수가 뻔히 보이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나 박정희 시대에도 얼마나 충과 효를 강조했는가?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 지난 사고방식이고 촌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심청전을 아이들에게 읽히고, 이렇게 심청각을 세우고 심청의 동상을 세우고, 효의 고장 백령도라고 홍보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서구 근대 문명이 진정한 인간 존중의 문화일까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전통적 가치가 이를 보완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사곶 해변, 콩돌 해변, 용트림 바위를 둘러 보았다. 사곶 해변은 세계에서 두 곳밖에 없는 구조토 해안이라고 하는데, 모래가 부드러운데도 단단해서 발이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 이곳을 천연비행장으로 사용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콩돌 해변은 개인적으로 이번 답사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곳이었다. 물론 두무진 기암절벽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장엄한 자연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작은 공 같은 돌들이 너무 예뻐고, 맨발로 그 해변을 걷는 감촉이 좋았다. 하루종일 앉아서 쉬거나 누워 있어도 좋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1박 2일의 장정을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올 때 파도가 심해서 약간 울렁거려 멀미를 하게 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도착할 수 있었다. 1박 2일만으로 백령도의 참모습을 제대로 느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홍범도기념사업회에서 애써 주신 덕에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되었고, 내 인생의 한 장면에 백령도가 남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백령도
안보투어
후기 02



오현석
기념사업회 이사



백령도를 다녀와서

99

올해 초부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처음 참여하면서 나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동을 해보겠다는 개인적인 목표와 달리 이렇저러한 사정으로 함께 참여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을 즈음 백령도 안보투어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우원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19명의 이사님들과 함께 드디어 7월 23일 오전 8시 30분 백령도행 코리아킹호에 몸을 실었다. 날씨는 잔뜩 찌푸린 흐린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바다는 비단결처럼 고와 정태춘의 '서해에서'라는 노래가 입가에 저절로 나올 정도로 평화롭고 여유로운 4시간 동안의 뱃길을 뒤로하고 소청도와 대청도를 거쳐 드디어 12시 30분에 용기포항에서 배를 내렸다. 맛있는 홍합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1896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인 중화동교회를 둘러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백령기독교 역사관을 둘러봤다. 이어서 이번 백령도 안보투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천안함 위령탑을 둘러 2010년 남북분단의 최전선에서 천안함과 함께 차디찬 바다에서 산화한 46 용사들에게 헌화하고 얼굴 하나하나를 쓰담아 보면서 이들의 희생이 앞으로 남북통일의 굳건한 초석이 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해병 제6여단을 방문하여 부대장으로부터 해병대 안보 브리핑을 받았다. 간간이 훑날리는 가랑비와 흐린 날씨 때문에 북녘 바다는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서해바다를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우리 군의 굳건한 의지와 역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군과 민의 원활한 소통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부대장님의 노고에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날 오후 일정의 백미는 다양하고 기묘한 기암괴석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두무진관광이었다. 약 10억년전 퇴적 당시 퇴적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곳 두무진은 마치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대암, 형제바위, 꼬끼리바위, 장군바위 등을 육상과 해상을 통하여 감상할 수 있는데 굽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람선을 타자마자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두무진의 해안절벽과 바위들의 군무, 우리를 마중 나온 물범들의 재롱까지 과연 명불허전 그 자체였다. 위풍당당한 수많은 바위 중 홍범도 장군 기개가 흠뻑 느껴진 바위를 홍범도 바위라 각자의 마음속에 찔매두고 유람선을 내렸다. 아침부터 강행군 탓에 밀려오는 약간의 피로감을 두무진 포구의 횃집에서 풀어본다. 자연산 놀래기와 우럭, 싱싱한 성게, 해삼, 가리비와 어우러지는 소주가 달디 달다. 저녁식사 후 연봉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잠자리에 들기 전 자유시 참변전후 항일독립군의 동향과 한인 강제 이주정책에 따른 홍범도장군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 과정과 그곳에서의 삶을 재조명하는 반병률 교수님의 특강을 끝으로 백령도에서의 첫날을 마무리 하였다.

7월 24일 아침은 어제와 달리 화창한 여름날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향한 곳은 심청이 몸을 던진 인당수가 내려다보이는 심청각이었다. 치마로 얼굴을 가린 효녀 심청상과 함께 질푸른 하늘끝 수평선 너머 인당수와 북녘땅이 해당화 사이로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심청의 절절한 효심보다는 철조망이 아닌 바다가 갈라놓은 남북 분단의 아픔과 한없는 평화로움의 어색한 공존이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문득 앞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어서 한국전쟁 당시 비상활주로로 이용되었다는 천연기념물 제391호 사곶해변과 암석들의 풍화·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오색영롱한 공돌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 있는 천연기념물 392호 공돌해안을 찾았다. 백령도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이곳만의 해안 경관을 지평선과 함께 마음껏 만끽해 본다. 그리고 백령도 안보투어의 마지막 행선지 용트림바위의 기괴한 모습이 저 멀리 어슴푸레한 대청도의 모습과 한눈에 들어온다. 용트림인지 몸부림인지 배배꼬인 바위의 모습이 심지어 안스럽기까지 하다.

백령도의 명물이라는 메밀냉면으로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에 올랐다. 수려한 자연과 심청의 효심이 깃든 전설의 섬 백령도, 남북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섬 백령도, 전쟁과 평화의 어색한 공존의 섬 백령도여행의 복잡하고도 애뜻한 소회는 시인 고은의 '백령도에 와서'라는 시를 빌어 마무리 하련다.

백령도에 와서

고 은

여기 오지 않고
나의 시대를 말하지 말라
여기 오지 않고
나의 조국 절반도 말하지 말라

여기 오지 않고
너의 애타는 사랑을 말하지 말라

오천년의 백령도

여기 와
저 심청 인당수의 수평선을 보아라
한밤중
온통 파문히는 파도소리를 들어라
비로소 가슴 가득히
너이고
나인
백령도 아침 햇빛을 맞이하라

백령도
안보투어
후기 03



정우기
기념사업회 이사



66

백령도 안보견학 소감문

99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이사로 2021년 10월부터 참여하게 되었지만 기념사업회 일정이 잘 맞지 않아 존경하는 이사님들과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사업회에서 7월 16~17일 “백령도 안보견학” 일정이 공지되었다.

다행히 일정이 맞고 백령도가 서해 5도 가운데 하나이면서 가장 멀리 북쪽에 접해 있어 선뜻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었는데 사업회에서 자세한 일정과 진행 안내를 보고 4번째로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사장님 일정으로 7월 23~24일로 변경 되어 잠시 개인적인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잘 정리되어 다시 신청하였는데 이번에는 며칠 전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동안 열심히 재활 치료하여 다행히 무릎보호대를 차고 걸을 수는 있어 우여곡절 끝에 인천항으로 갈 수 있었다.

아침 8시 인천항 연안부두에 가니 함께 가시는 18분의 이사님들 가운데 아는 얼굴은 한동건 사무총장님뿐이어서 매우 낯설었다. 하지만 사업회 들어와 처음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1박 2일 동안 우원식 이사장님, 황원섭 부이사장님, 이번 안보견학을 준비하여 주신 김종옥 역사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조금씩 낯이 익혀졌고, 지난 9개월 동안 간접적으로 알게 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내용보다 이를 동안 이사님들과 함께 하며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에 처음 찾은 “백령도”는 세계 유수의 해안 관광 명소에 뒤지지 않는 섬의 아름다운 자연과 서해에서 중국과 가까워 해외 교류의 시작점이면서 심청전과 관련된 역사적인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일반적인 여행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2가지 경험이 추가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첫째는 백령도 최정상에 있는 해병대 6여단 방문에서 백령도를 둘러싼 남북의 대치 상황을 서해안 모형과 함께 설명을 듣고 상호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이었다. 백령도라는 곳이 남쪽에서는 인천으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곳이고 북쪽에서는 웅진반도 해안으로부터 단지 15km 떨어진 곳이라 군사적으로 공격과 수비 측면에서 모두 최고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홍범도 장군께서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3년에 돌아가셨으니 남북이 갈라진 상황을 모르셨겠지만, 만일 1950년 살아계셔서 멀리 카자흐스탄 이국땅에서 남북 전쟁의 시작을 아셨다면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는 오후 식사를 마치고 들어와 오후 7시부터 시작한 반병률 이사님의 “홍범도 장군의 오해와 진실”과 성원용 전문위원님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이었다. 당초 1시간씩으로 오후 9시면 끝날 발표와 토론은 이사님들의 홍범도 장군을 이해하기 위한 열정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열띤 토론으로 밤 12시까지 이어졌다. 나는 평소 9시면 자는 새벽형 인간이라 9시에 자지 않으면 머리가 아픈데, 주제가 흥미로워 12시까지 열심히 듣고도 발제자 2분을 포함하여 몇몇 이사님들과 함께 한동건 사무총장님 숙소에서 2시간까지 토론을 이어 갔다.

이번 “백령도 안보견학”은 아름답고 유서 깊은 백령도를 새롭게 알게 되면서도 해병대 방문으로 남북의 현실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으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해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를 높이게 되었는데 1박 2일이 아니라 3박 4일 정도의 아주 밀도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홍범도 장군 등 156명, 천안 독립기념관에 전입신고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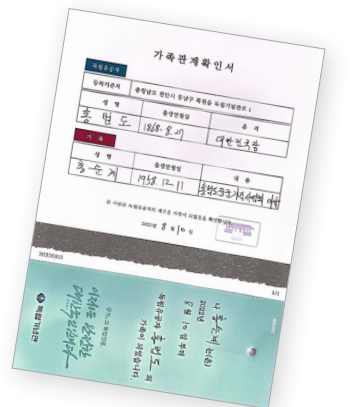
“무적(無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민국인입니다.”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국가보훈처에서는 8월 10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례의 집에서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지사, 장인환 지사 등 무적(無籍) 독립유공자 156명의 국적을 부활하는 가족관계등록 행사, “이제는 완전한 대한민국인입니다.”를 개최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 국내에 적(籍)이 없는 무호적자였는데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처에서 지난 7월 ‘독립유공자 공적 및 신상 관련 정보’와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등본을 받아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셈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하여 민족시인 윤동주 지사의 후손(조카) 윤인석 씨, 송몽규 지사의 후손(조카) 송시연 씨, 인요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승경 현봉학기념사업회 이사장, 윤석구 광복회 천안시 지회장과 홍범도장군기념회에서 황원섭 부이사장 및 홍순계 상임이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업무보고를 가졌는데, 대통령께서 무적 독립운동가의 가족관계등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앞으로 국적이 없는 독립유공자들에게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보훈처에서는 앞으로 무적 독립유공자가 없도록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여 국가적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도, 호적도 없던 독립유공자 156명이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된다”며 “이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축사에서 “홍범도 장군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망명했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에 순국하여, 대한민국의 공식 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한 분들이다.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신채호·이상설 등 직계 후손이 있는 독립유공자 73명은 후손의 신청에 따라 정부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은 이번에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하여 처음으로 성사되게 되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 보훈처장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의 주소가 독립운동의 상징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 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후손이 없어서 국적이 없는 상태였던 독립유공자들이 천안시 목천읍에 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다. 특히 박 보훈처장은 가족관계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무국적자이었기 때문에 당하는 민족적인 수모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운동주 지사의 사례를 들었다. 중국에서 윤 지사를 중국인 조선족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 행사를 마무리하고, 독립기념관 겨례의 집 특별전시장으로 이동해 독립유공자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한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하여 민족적 정서가 살아있는 저항 시인 윤동주 지사, 일제의 침략을 적

극적으로 옹호한 미국인 스티븐슨을 처단한 장인환 의사, 광복군총영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 등은 영정을 설치하고 그 아래 새로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부쳤다. 홍 장군 사진 아래는 부인 단양 이 씨와 양순, 용환 두 아드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부착했다. 156명 중 다른 독립유공자들은 바로 옆, 겨례의 집 벽에 명표만 부착했다. 그리고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관람자 중 가족으로서 인연을 맺으려는 분들은 상세한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하면 가족관계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필자는 이날 국적을 회복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북한 출신이라는 점에서 울적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선열들의 의지에 반하여 남북이 분단되고 동족상쟁을 하면서 분단이 장기화되어 북한에 있는 호적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무국적자로 구천을 헤맨 것이다. 순국선열들의 영혼이 거침없이 고향을 찾게 하기 위해서도 분단된 조국을 빨리 통일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가슴을 뛰게 했다.



SBS 특집방송

전설의 타이거 헌터, 78년 만의 귀환

-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홍범도 장군 편 -

김경준 한국외대 사학과

지난 8월 18일 방영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의 주인공은 홍범도 장군이었다. 마침 이날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잠들어 있던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되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불패의 신화 뒤에 가려진 장군의 슬픔

'전설의 타이거 헌터'라는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이 홍범도 장군은 호랑이 잡던 포수들로 이뤄진 산포수 의병대를 이끌고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무려 60전 60승이라는 불패의 신화를 기록했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전승 기록에 더해 장군의 신기(神技)에 가까운 사격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필자 역시 장군의 사격술이 대단히 뛰어났다는 것은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병을 낫힌 뒤 주둥아리 사이로 총알을 통과시켰다던가 공중으로 동전을 던진 뒤 명중시켰다던가 하는 일화들을 접하면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이번 방송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홍범도 장군의 가족사 등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뤘다는 점이다. 그동안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면 대부분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군 지휘관이라고만 인식해왔고, 또 매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부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잔혹한 고문을 받다 옥사한 아내와 아버지를 따라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사망한 두 아들 양순과 용환 등의 이야기를 통해 위대한 독립군 지도자라는 명성 뒤에 너무나도 큰 개인적 아픔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을 잃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장군의 의기(義氣)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 무엇이 장군으로 하여금 끝없는 독립투쟁에 나서게 만들었을까 만감이 교차했다.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 홍대장

방송에서는 고려인 강제 이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긴 시간을 할애해 소개했다. 1937년 러시아 당국은 흑한의 날씨에 고려인들을 열차에 태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6,000km 여정으로 그 기간만 무려 40일이 소요됐다. 얼마나 춥고 배고픈 여정이었으면 당시 고려인들이 '지옥열차'라 불렀을까. 그렇게 17만 명의 고려인들이 황무지였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졌다. 홍범도 장군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마치 잡초와도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한민족답게 고려인들은 황무지를 일궈내며 생존을 도모했다. 그런 그들에게 홍범도 장군은 힘든 타향살이를

버텨낼 수 있는 정신적 지주였다. 일본군을 무찌른 독립군의 영웅과 함께 하면서 고려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 자부심을 품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왜 장군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토록 작별을 아쉬워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다. 최근 광주 고려인마을에 장군의 흉상이 세워진 것만 봐도 장군에 대한 고려인들의 향수가 얼마나 애틋한 것인지 짐작이 간다.

78년 만에 이뤄진 장군의 귀환

한편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발굴 당시 사진 역시 흥미로웠다. 장군은 키가 190cm에 이를 정도로 장신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발굴된 유해는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독립된 조국으로 귀환하기까지 78년 동안 머나먼 이국땅 카자흐스탄 지하에서 비닐에 싸인 채 후손들의 손길만을 기다렸을 장군을 생각하니 새삼 가슴이 저며오는 듯했다. 그렇게 장군의 후예인 대한민국 공군의 호위를 받으며 장군은 마침내 2021년 8월 15일 고국 대한민국으로 귀환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그 날의 감격은 여전히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방송에서는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로 인해 빨갱이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바람에 반공주의 풍토가 강한 남한 사회에서 유해 봉환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소개됐다. 실제로 장군의 유해 봉환을 전후하여 일부 친일 극우세력들이 장군을 향해 철 지난 ‘색깔론’을 들이밀며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작년 10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공개적인 반박에 나선 바 있다. 필자 역시 당시 간담회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보도했으나,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이들을 보면서 대중들의 편견을 바꾸기란 쉽지 않음을 느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공중파에서 장군에 대한 악의적 왜곡을 반박하는 내용이 추가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는 차후에라도 홍범도 장군 관련 방송을 제작하려는 이들이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로운 싸움을 이어간 영웅들을 기억하자

방송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이름 없는 의병들의 사진 한 장이었다. 캐나다 출신 기자 맥켄지(F.A. Mckenzie)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서도 소개되었고, 교과서에도 의병을 상징하는 사

진으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보는 의병들의 사진은 강렬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출연진들은 “이름 없는 의병과 민초들의 희생을 기억하자”는 말로 방송을 마무리했다.

“이 싸움은 대체 무엇입니까?”

“의(義)와 불의(不義)의 싸움이지.”

최근 개봉한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서 항왜 준사(김성규 扮)가 이순신 장군(박해일 扮)과 나눈 대화의 일부다. 극중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략에 맞선 조선군의 싸움을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규정한다. 홍범도 장군 그리고 장군과 함께 싸웠던 이들 역시 일본의 침략 앞에 자신과 가족의安危를 모두 내던지고 기꺼이 총을 들고 일어섰다. 그것은 오로지 의를 향한 한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의병(義兵)이라 불렀던 까닭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른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웅처럼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의에 맞서 의로운 싸움을 이어나갔던 홍범도 장군과 의병들을 기억하며 적어도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노라 다짐해본다.



한인의 러시아 이주사 (하)¹⁾

소비에트체제 건설 참여와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반병률
홍범도 아카데미 원장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소비에트 건설기의 한인사회(1923~1937)

혁명 전후의 한인사회

1922년 10월 25일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철수하고 원동공화국(Far Eastern Republic)의 인민혁명군이 입성함으로써 1918년 여름 이래 5년여에 걸친 시베리아 내전이 종결되었다. 11월 16일에는 마침내 1920년 4월 이래 소비에트 정부와 일본 간의 완충국으로서 존립해 온 원동공화국이 소비에트 국가에 공식 편입되었다. 1922년 말 소비에트 시대의 개막은 1860년대 이래 제정러시아시대에 형성된 한인사회의 내부변화를 요구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정시대에 한인사회의 구성원은 크게 입적한 원호인과 입적하지 않은 여호인으로 구분되었고, 사회경제적·법적 지위가 크게 달랐다. 입적과 동시에 토지를 분급받았던 원호인들은 원호인촌에 따로 거주하였고, 소작과 고용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여호인들 역시 별도로 여호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부유한 원호인들은 소작과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했던 여호인들을 차별하고 착취, 압박하는 일이 예사였다. [곤닷치 총독 시절 1912년 이후 입적한 원호인들은 토지를 분급 받지 않았다].

1914년의 한 통계에 따르면, 64,309명의 한인 가운데 원호인이 20,109명(31.3%), 여호인이 44,200명(68.7%)으로 원호인과 여호인의 구성비율이 3 대 7이었다. 시베리아 내전 종결 직후인 1923년 당시 한인 농가 16,767호 가운데 13.7%에 해당하는 2,990가구가만이 토지를 갖고 있었다. 한인사회의 이러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은 1917년 혁명 이전부터 계속 악화되어 왔다. 즉 소작인의 비율은 1905년의 30%에서 1910년에는 70%, 1917년에는 90%로 점차 늘어났으며, 품팔이꾼의 수가 1910년에는 13,750명에서 1917년에는 26,670명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이들 여호인 대부분은 문맹이었고, 교육·문화수준 역시 매우 낮았다.

1) 이 글은 『한국사 시민강좌』 28집(일조각, 2001)년에 게재되었던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사: 연해주로의 유랑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를 수정한 것이다. 같은 글이 필자의 『러시아 고려인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최재형』(한울아카데미, 2020)에도 실려있다. 2회에 걸쳐 나누어 연재한다.

원호인-여호인 관계는 시베리아 내전 시기의 빈번한 정치적 격동의 와중에서 정치적 대립의 양상을 띠게 된다. 즉 원호인 가운데 특히 부유한 원호인들은 반혁명파에 가담하거나 시베리아 출병 일본군과 결탁하는 자들도 있었던 반면, 여호인의 다수는 빨치산 투쟁과 적위대에 참여하여 혁명파에 가담하였다. 특히 1929년 이후 토호(土豪)로 불리며 ‘청결’의 대상이 되는 부유 원호인들은 1920년의 4월참변 이후 일본군의 후원으로 조선인교육회, 간화회, 조선인민회 등의 친일적 어용조직들을 조직하여 한인사회의 친일화와 분열 대립을 조장하였다.

신경제정책(NEP) 시기의 한인사회

내전 종결 직후 러시아 공산당 원동공화국 간부들은 연해주 한인들의 집단이주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한인들을 통한 일본의 영향력이 원동지역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러시아 공산당 원동 간부의 한인 이주 결정은 한명세를 비롯한 한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되었지만, 제정러시아 시절 이주 한인들을 국경지방으로부터 이주시키고자 했던 러시아당국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원동지역의 소비에트화는 원동혁명위원회에 의하여 급속하게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923년 2월 현재 122개의 한인 소비에트를 포함하여 458개의 마을에서 소비에트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소비에트화 과정이 그렇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특히 원호인촌에서는 부유한 원호인들이 1929년 반토호투쟁에서 ‘청결’될 때까지 소비에트화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저항했다.

토지문제는 한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와 맞먹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절실한 이슈였다. 1926년 당시 원동변강(邊疆)의 한인 총수는 약 16만 명 정도로 80%에 해당하는 13만 4천 명이 연해주 남부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 현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비에트 정부의 적극적인 토지분배 정책으로 1922년 당시 3천 호에 불과했던 토지보유자가 내전 종결 후 5년 동안 약 1만 호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토지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 것은 국내와 만주로부터의 계속되는 새로운 이주자의 유입이었다. 새로운 이주자의 유입은 조선 및 만주와의 국경지대에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 현에 더 심했다. 1927년 말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현의 한인 농가 19,836호 가운데 52%인 10,347호가 토지를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9천 호에 새로운 이주자를 합한 12,000호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현으로 이주해야 할 형편이었다.

한인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러시아 국적 취득 문제였다. 1923년 8월, 원동변강집행위원회 간부회는 소비에트 권력을 위해 투쟁한 한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러시아 국적을 부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인 무장유격대원들에게 영주권이 배부되었다. 그리하여 1923~1924년 동안에 2,629명, 1925년 2,270명, 1926년 7,884명, 총 12,783명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리하여 1926년에는 총 52,635명이 러시아 국적자였는데, 이는 전체 한인의 약 31%였다.

‘위로부터의 사회주의 건설’과 한인사회

1927년 12월에 개최된 소련 공산당 15차대회는 대규모 사회주의 농업생산[집단화]으로의 전환을 결정했으며, 이와 함께 제1차 5개년 계획을 입안하였다. 1928~1930년에 걸쳐 전개된 이른바 반우파투쟁(反右派鬭爭)은 제1차 5개년 계획과 집단화의 반대자들에 대한 투쟁을 의미했다. 연해주에서의 반우파투쟁과 전면적인 집단화는 1929년 말부터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한인사회에서는 토호로 불린 부호 원호인들이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다. 연해주 지역 러시아 공산당 고려부의 기관지 「선봉」은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검사위원회가 결정한 당원 청결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수회에 걸쳐 연재함과 동시에 ‘가면 쓴 이류분자를 구축하라’, ‘흉악한 토호를 몰아내자’, ‘농촌 토호는 원수 계급이다’ 등의 구호하에 각지에서의 당 청결심사와 반토호투쟁 소식을 연재하였다. 1929년 12월 현재 연해주에서 약 300개의 한인 부농농장이 몰수되었고, 집단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한 토호들이 처벌되고 추방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 초 한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던 블라디보스토크 현의 스찬 구와 포시예트 구에서는 한인 농가의 90%가 집단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 집단화 과정이 순조로이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전면적 집단화 직전 거의 모든 한인 농촌에서 과거의 원호와 여호 간의 대립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계속되었다. 포시예트, 스찬(수청), 수이푼(추풍) 등지에

서는 격렬한 토지분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른바 토호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저항과 사보타주[怠業]를 전개했는데, ‘집단화가 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공동소유가 된다’는 등의 악성 루머를 퍼뜨렸고, 집단농장의 시설물 파괴, 가축 독살, 곡물 은닉 등의 사보타주를 행하거나 집단화 추진당원이나 지도원들을 암살하는 적극적인 저항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열성적인 일부 빈농, 고용인들 사이에서 ‘지금 토호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극단적 좌경화의 경향도 없지 않았다.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강제적 집단화의 예도 적지 않아서, 심지어 집단농장 농민이 자신이 집단농장원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조잡하고 성급한 집단화 작업으로 다수의 한인 빈농들이 농촌집단화를 ‘무슨 전염병이나 만난 것처럼 겁을 내고’ 마을 사람의 반 이상이 농촌을 떠나기도 했고, 빈농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감시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토호들의 조직적인 사보타주와 선동, 위로부터의 급속한 집단화에 따른 농민들의 인식 부족과 일부 공산당원과 빈농의 좌경적 경향으로 농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많은 빈농이 과중한 국세가 책정되어 있는 국영농장에서 반강제적으로 노동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차한 땅에서 경작하는 것을 선호하여, 1930년 3~4월에 일부 마을에서는 중농, 빈농들이 집단농장에서 대규모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높게 책정된 과세, 원시적인 농업기술, 생산력 증진 의욕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벼 파종면적의 축소와 수확량 감소를 초래하였다.

1929년의 제9차 원동변강 당대회에서 종파 투쟁을 하는 한인 공산주의자들과 ‘결단적으로 투쟁’할 것이 결정되었다. 당 청결과 반토호투쟁 과정에서는 주로 과거 국민의회-이르쿠츠크파에 속했던 지식인들이 출당되거나 추방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토호 출신이 많았는데, 특히 내전 당시 백위파가 득세하던 시기에 백위파측에 가담한 반혁명적 활동이나 시베리아 내전 이후의 종파 활동 혐의로 출당되었다.

한인사회의 불세비키적 교육·문화운동

1929년 당시 연해주 지역 한인 수는 총 16만 8천 명으로 문자 해독률이 34%였다. 한인사회의 대중교육 시설이 제정 시기에 비하여 혁명적으로 확대되었다. 1917년까

지 원동지역에는 4년제 초등학교가 15개에 불과하였으나, 강제 이주 직전인 1937년 8월 현재 한인의 교육·문화기관은 초등학교 300여 개, 초급중학교 60여 개, 중등학교 및 전문학교 20여 개였다. 특히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는 1918년 한족회 주도로 중등학교로서 설립된 조선인사범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1926년 고려교육전문학교로서 정식 설립되었는데 1936년까지 10년 동안 교원 244명을 배출하였다. 1931년에 설립된 블라디보스토크의 고려사범대학은 1935년에 첫 졸업생 17명을 배출하였고, 학교 내에 단기 코스의 노동학원을 부설하였는데 1934년 5월 현재 고려사범대학에는 158명, 노동학원에 265명의 농민·농민출신의 학생들이 재학하였다.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신문으로 「선봉」이 간행되었다. 「선봉」은 블라디보스토크 현 당간부 명의로 1923년 3월 「삼월일일」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다가, 1929년 4월 하바롭스크의 러시아공산당 원동간부 명의로 1937년 8월까지 발행되었다. 「선봉」은 발행 횟수와 부수가 꾸준히 늘어 1935년 8월 당시 격일간으로 만 부를 발행하고 있었다. 그 외에 포시예트 구역 당간부가 발행한 「레닌의 길로」(1930년 창간), 포시예트 엠테스 정치부가 발행한 「공격대원」(1933년 창간)과 블라디보스토크 어업조합에서 발행한 「연해주어부」(1930년 창간) 등이 있었다.

종합예술단체로서 1932년에 창립된 고려극장(조선극장)은 “형식은 민족적, 내용은 사회주의”라는 소비에트 문화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관으로서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하고 한인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한인 지식인들 간에 일련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930년 11~12월, 「선봉」지에 게재된 오창환과 계봉우 간의 이른바 「고려문전」논전이다. 오창환이 쓴 「고려문전」을 보고 계봉우가 그의 이론을 비판하자 오창환이 이에 반박하였던 논쟁이다. 오창환과 계봉우가 각각 과거 국민의회-이르쿠츠크파, 상해파로 대립한 경력이 있었던 만큼, 이 논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논쟁은 한자폐지론-한자제한론 논쟁이다. 「선봉」을 통하여 1929년 2월 계봉우의 한문폐지 반대론과 이에 대한 이괄의 비판이 교환된 후, 1931년 4

월까지의 논전에서 계봉우와 장도정 등이 한자제한론을, 「선봉」의 중심인물이었던 이백초와 이괄 등이 한자폐지론을 주장하였다. 한자폐지론은 1927년부터 시작된 '한글 라틴화운동'과 관련되어 제기된 것이었다. 한자폐지론-한자제한론 논쟁 역시 주도 인물들이 상해파 [계봉우, 장도정]와 이르쿠츠크파 [이백초, 이괄]로 포진된 양상을 띠었다.

한인 지도자들에 대한 스탈린의 대탄압

193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침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경에서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앞서 1929년 9월 중국의 만주군벌 장학량(張學良)이 동중철도의 무력적 점령을 꾀함으로써 중·소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소련은 국경을 봉쇄하였다. 이후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고 다음 해에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1936년 11월 25일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소련을 겨냥한 반공협정(反共協定)을 체결하였고, 1937년 7월 7일에는 마침내 중국 본토를 침략하였다. 아직도 일본에 맞서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던 소련은 일본과의 무력 충돌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1935년 3월 동중철도를 일본에 매각하였다.

1930년대 중반, 철도와 시설물 파괴, 수원(水源)에의 독극물 살포, 일본군의 국경 침범과 첩보 활동, 국경에서의 관동군과 소련 적군 간의 총격전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일련의 사건들은 보안당국의 대대적인 체포와 처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을 반영하여 1937년 중반에 이르러 「선봉」은 「프라우다」에 연재된 원동 지역의 일본 정탐에 관한 기사와 사실들을 연일 번역·게재하였다. 알 하마단의 「일본탐정계통」과 「일본정탐」, 그리고 「일본 정탐부의 파탄적 사업」은 일본 정탐기관의 광범한 활동을 부각시키고, 특히 트로츠키주의자, 부하린파, 백계 러시아인들과 함께 한인과 중국인들을 '일본 정탐원의 원천'으로 지목하였다. 중앙과 지방에서 조직된 대중집회에서는 '인민의 적들'에 대한 처형을 촉구하는 결의들이 채택되었고, 한인들 역시 '인민의 적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1934년 12월 1일 레닌그라드당 서기인 키로프가 암살된 이후,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등에 대한 처형(1936. 8)을 시작으로 스탈린의 반대파 숙청이 이어졌다. 1935년의 제17차 당대회에 참여했던 1,961명 가운데 1,108명이 희생되었다. 여기에는 원동지역의 저명한 볼셰비키 거의가 스탈린 처형의 태풍을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출당·처형된 '인민의 적들'은 영락없이 일본의 각종 정탐부와 협력한 혐의를 받았다.

내무위원부(NKVD) 원동변강 책임자로서 한인의 강제 이주를 책임졌던 뤼쉬코프가 일본에 망명한 후 일본 잡지 「계간 로시아」에 기고한 글에 밝힌 바에 따르면, 비합법단체에 관여한 혐의로 9,000명의 러시아인 당원과 군인들이 체포되었다 한다. 소수 민족 가운데 중국인은 11,000명이 체포되고, 8,000명이 추방되었으며, 600명의 폴란드인, 수백 명의 독일인, 라트비아인, 리투아니아인, 그리고 1,000명의 백계 러시아인들이 체포·처형되었다. 한인 지도자들은 약 2,500명이 체포·처형되었다.

한인 지도자들의 체포·처형 과정을 알 수 있는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강제 이주 이전인 1936년에서 1937년에 이르는 시기에 대대적으로 체포·처형되었는데, 강제 이주 도중과 이후에도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각지에서 한인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다. 강제 이주 전인 1937년 여름 「선봉」의 기사들을 보면 1937년 중반에 이르러 한인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반의 반토호투쟁과 전면적 집단화의 과정, 그리고 1930년대 중반의 스탈린 탄압 과정에서, 한인들이 점차 '인민의 원수들'을 규탄하는 집단적인 테러문화에 익숙해져 갔다는 점이다. 이 과정은 '선봉 브리гада'나 '문화행진 브리гада 발기단' 등 문화전위 그룹을 이끌었던 새로운 세대의 젊은 지식인들이 주도하였다. 이러한 정치·문화 속에서 2,500명에 달하는 한인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처형이 아무런 저항 없이 침묵 속에 전개될 수 있었고, 급기야는 한인사회 전체에 대한 강압적·집단적 강제 이주가 단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인 강제 이주

1937년 8월 21일 소련 중앙인민위원회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일본 간첩들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인민위원회 의장 몰로토프와 소련공산당 중앙위 서기장인 스탈린이 서명한 이 결의안에 따라 1938년 1월 1일까지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강제 이주는 9~11월의 기간에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 때는 국경 지역 거주 한인들, 2차 때는 내지 거주 한인들이 이주당했는데, 총 124대의 수송 열차에 36,442가구 171,781명이 원동을 떠났다. 이 가운데 20,170가구 95,256명은 카자흐스탄공화국으로, 16,272가구 76,525명은 우즈베키

스탄공화국으로 이송되었다. 강제 이주된 한인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모든 재산과 가재도구를 버려야 했고 한 달여의 여행에 필요한 식량과 옷가지만을 허용받았다. 중환자, 노인, 임산부를 포함하여 모든 한인이 예외 없이 화물, 가축 열차에 실려 대륙 깊숙한 곳으로 보내졌다. 이송 도중 전염병이 발생하여 노인들과 홍역에 걸린 아이들이 많이 사망하였다.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한인들은 대부분 토굴, 창고, 마구간, 돼지우리, 폐허가 된 사원, 옛 감옥 등에서 임시로 거주하였다. 이들은 혹독한 추위와 기근, 그리고 질병의 위협 속에서 첫겨울을 보내야만 했다. 풍토병을 비롯한 질병의 확산으로 어린이, 부녀자, 노인들이 많이 죽었다.

임시로 겨울을 보낸 한인들은 1938년 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계획에 따라 또다시 새로운 이주지로 이동해야 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약 60%가 재이주당했다. 이들 이주민 가운데는 당국의 금지와 박해를 무릅쓰고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하기도 했다. 한인들은 다시 중앙아시아의 전혀 다른 기후와 문화적·사회경제적·언어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연해주를 떠날 때 약속했던, 두고 온 재산에 대한 보상과 이주수당, 정착자금은 거의 받지 못하였다.

한인들만이 스탈린정권의 강제 이주 대상이 아니었다. 한인 외에도 1930년대에 부리아트인, 카라차이인, 독일인, 폴란드인 등의 소련 내 소수민족들이 8개의 적성민족군에 포함되었다. 현재로서 소련 당국이 한인의 강제 이주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전후 사정을 밝히는 일은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맺음말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는 러시아 한인사회 전체의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한 대사건이었다. 강제 이주는 2,500여 명의 한인 지도자들에 대한 대탄압과 함께 1860년대 이래 한인사회가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쌓아올린 정치적·사회경제적·문화적인 모든 성과에 대한 전면적이며 비극적인 파괴행위였다. 이러한 악조건하에서도 한인들은 정착 첫째, 둘째 해인 1937~1938년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특유의 근면성과 끈질김으로 점차 새로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갔다. 1938년 말경 한인들은 카자흐스탄공화국에 57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48개의 집단농장 [콜호즈]을 건설했다. 그러나 이들은 스탈린 사후 1956년까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고, 정치적인 활동도 금지되었다. 러시아혁명과 소비에트 건설

에 크게 공헌하였으면서도 대가는 커녕, 혹독하게 처형되어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던 한인 지도자들이 복권되기 시작한 것은 흐루시초프가 이른바 스탈린 격하운동을 개시한 1956년 이후의 일이다. 이때 비로소 한인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와 정치활동 참여가 허용되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정착 이후의 난관을 극복하며, 성공적으로 집단농장을 건설하고 전문직으로 활발히 진출하여 모범적인 민족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한인들은 소련 붕괴와 공화국들의 독립으로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고통, 그리고 민족주의의 고조와 타지크스탄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의 민족갈등에 따른 긴장과 대립의 잠재적인 위협을 극복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유랑의 길을 떠나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기림사업회 소식 01 3/4분기 이사회

지난 9월 7일 정오 국회의원회관 국화룸에서 3/4분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20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이사 위촉장 수여, 22년도 주요 추진사업 진행보고, 각 분과위원장들의 2/4분기 활동 보고, 4/4분기 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오찬의 순서로 진행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무국 중심 활동에서 7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행사 1, 2, 아카데미, 편집, 재정, 역사,디아스포라)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원식 이사장은 각 분과 위원장들과 위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이사들이 5명씩 CMS회원 가입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활동보고

- 봉오동전투 전승 기념식 : 6월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120여명 참석)
- 고려인 동포 서울 역사 문화 투어 : 6월 19일 (고려인 중,고,대학생 27명)
- 홍범도아카데미 창립식 : 6월 21일 (반병률 원장과 10명의 전문위원 선임)
- 백령도 안보투어 : 7월 23~24일 (19명 회원)
- 유해봉환 1주년 기념 묘역참배 : 8월 15일 대전현충원 (70여명 참석)
- 무호적 독립유공자 호적 창설 : 8월 10일 독립기념관 (장군가족 호적 창설)

기림사업회 소식 02 신임 이사 위촉

3/4분기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신 신임 이사님들입니다.

이름	이력	위촉일
황운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9월 7일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장선	(주)웨밀리팜 대표이사 (법인회원)	
변재용	한솔교육그룹 회장	6월 15일
김선현	오토그룹 회장	
오광영	前 대전시의원	5월 4일
박점조	애지모 봉사단장	

기림사업회 소식 03 4/4분기 주요 행사 안내

① 제2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 및 시민참여 사격대회

일시 | 10월 20일(목) ~ 23일(일)
장소 | 전라남도종합사격장(나주)
주관 | 대한사격연맹
후원 | 국가보훈처, 광주광역시, 나주시

② 홍범도장군 순국 79주년 추모식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식

일시 | 10월 25일(화) 11시
장소 | 대전현충원 제3묘역
내용 | 서울에서 8시 30분 출발

③ 카자흐스탄 역사 탐사

일시 | 10월 25일(화)
장소 | 알마티, 크즐오르다
(구묘역, 홍범도 거리 등)

④ 학술회의

일시 | 11월 11일(금) 14시 ~ 18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 주신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임원 연회비 납부현황 (납부일 순, 8월 31일 기준)

문홍선 박준수 이경철 김용봉 최창석 홍용의 김성현 홍성종
홍이표 이행란 부윤경 채예진 김우진 박석봉 김용환 홍순계
황원섭 이명우 정광균 김 찬 최익훈 최 윤 문현군 송영운
이재호 홍재구 김종욱 홍성덕 우원식 오광영 안태호 변재용
김선현 정내하 박점조 정우기 유희테 정보현

임원명단

이 사 장 | 우원식 국회의원
명예 이사장 | 이종찬 우당기념관 원장
부 이 사 장 | 황원섭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감 사 사 | 박형상 변호사 / 前 서울중구청장
상 임 이 사 | 홍순계 前 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사 무 총 장 | 한동건 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신임이사

황원하 국회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장선 ㈜체밀리팜 대표이사

이사

강호형 KC COTTRELL 감사
김 찬 前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경호 前 주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
김선현 오토그룹 회장
김성현 SM그룹 전무
김수송 ㈜이음컴넷서비스 대표
김양진 BC카드 상임이사
김용봉 한국빅데이터학회지도 교수
김용환 前 한남대 부총장
김우진 K잡스 대표이사
김종욱 법률사무소 율전 변호사
김준목 (사)혁신경제 이사장
김진형 前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태원 NH 증권 부사장
김현권 前 국회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형상 조이 세무회계 대표
남인순 국회의원
노정래 前 건화 감리CM본부 사장
류병균 평화전략연구소장
문현군 한국노총부위원장
문홍선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박드미트리 P&TEC 농업조경법인 대표
박석봉 前 육사 교수부장
박완주 국회의원
박점조 애지모 봉사단장
박준수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센터장

CMS 회원 회비 입금현황 (가나다 순, 8월 31일 기준)

강도연 강미혜 강석령 강지연 강태영 계민경, 고형우 구본길 구자룡 권석중 권영희
권재석 김거성 김경애 김관표 김다영 김대영 김대한 김도식 김미선A 김미선B 김미자
김민경 김분순 김사업 김석진 김선자 김성미 김성순 김성애 김성현 김신애 김양미
김영순 김옥찬 김용경 김우진 김윤미 김재현 김지현 김정숙 김정식 김종철 김준수
김창관 김창환 김철순 김태원 김학필 김한백 김한의 김현수 나명현 나홍섭 노두섭
노용기 맹진규 문삼영 민기식 민병훈 반병률 박국진 박기수 박기호A 박기호B 박미혜
박상철 박선원 박성복 박은용 박점조 박조수 박준영 박지호 박태근 박형동 박혜리
방은정 배영실 배효연 백장현 서 민 서양원 석진경 석혜경 설정선 성원용 손여록
송국영 송정화 신동혁 신순봉 신승관 신완철 안성중 안영수 안영현 안태일 양달막
양민숙 양시모 엄기인 엄범용 여상연 오연근 우문식 유봉석 유정은 윤여각 윤진희
이기환 이길영 이대호 이명수 이병국 이병룡 이상걸 이상진 이상국 이성미 이수연
이순자 이승룡 이영란 이영희 이원정 이우창 이윤기 이은영 이정원 이정화 이주열
이주용 이준호 이종달 이지연 이지선 이 진 이태준 이태훈 이행란 이현주 이형철
임헌문 장승희 장영진 장현우 전광출 전부선 전중선 전형범 전홍기 정기일 정동준
정두영 정명희 정병훈 정성관 정승일 정용운 정윤미 정인택 정준수 정지국 정찬희
정현석 제성수 제옥평 조국환 조봉현 조영옥 조현재 지애숙 지영순 지예은 지현주
채인묵 천상영 최성우 최원경 최재호 최향수 하기호 한영우 한재원 허양순 홍광기
홍경표 홍영만 홍진표 홍정희 홍진표 홍희령 황덕순 황중섭 황희연
JINCHUNXING (사)한국마트협회 (주)비티에스웨스턴

변재용 한솔교육 그룹회장
부윤경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서경석 현대건설 부사장
서정호 무주살림연구소 대표이사
석순용 특허법인 신세기 대표
손광춘 건축업
손영훈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전무
송영운 더스페이스(주) 대표
안태호 한국전기감리협의회 부회장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 변호사
오광영 前 대전시 의원
오세중 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오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본부장
위성곤 국회의원
위평량 前 서울신용보증재단 센터장
유 용 서울시 의원
유정배 前 대한석탄공사 사장
유희태 완주군 군수
이경철 前 노원구 의회 의장
이명식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이명우 평안남도 지사
이상옥 前 국회의원 13대
이승중 네무스텍 대표
이재호 한국리싸이클링 대표
이행란 애지모 대표
임의택 前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임태성 (재)서산복지재단 이사장

정광균 ㈜미르나인 대표
정내하 ㈜미네랄하우스대표
정보현 노원 소상공인협의회 감사
정수진 前 하나카드 대표이사
정수진 하나카드 자문위원
정우기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제종길 17대 국회의원
조승문 킨텍스 부사장
조태수 (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채예진 대한고려인협회 부이사장
최 윤 E3플랜비 대표이사
최옥수 무안군 상공인회 회장
최익훈 연세대 교수
최재용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최창석 경영혁신연구원장
한승관 대한변리사회 회원이사
한왕기 前 평창군수
한종관 서울시립대교수
홍성덕 前 주독일한국대사관 공사
홍성중 남양홍씨 남양군파대종중회 회장
홍용의 (주)평화매탈 대표이사
홍의락 前 국회의원
홍이표 하이리빙 대표
홍재구 당정사적보존회 회장
홍중표 강동수산 대표이사

| 후원 안내 | 신한은행 100-027-188760 (사)여천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 가입 문의 | 한동건 사무총장(010-2769-2002) | 홈페이지 | www.hongbumdo.org